

이레니우스(Irenaeus)의 이단논박(“Against Heresies”)에 나타난 기독교윤리관 분석

- 윤리철학적 접근

안수강 (백석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규범인가? 상황인가?

1. 상치관계(相馳關係)로서의 ‘규범’과 ‘상황’
2. 진리의 잣대로서의 성경의 유일성
3. 성경의 권위에 대한 변증
4. 총괄갱신교리(總括更新敎理)에 나타난 규범의식

III. 의무론적 윤리인가? 목적론적 윤리인가?

1. 상치관계로서의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
2. 사도적 진리 계승의 중요성
3. 두 윤리관, 양자의 상합(相合)과 충족의 원리

IV. 공동체윤리의 어떤 면을 중시하는가?

1. 공동체윤리에 대한 견해들
2. 진리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하는 교회공동체
3.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성’과 ‘하나 됨’의 구심점
4. 총괄갱신교리에 함축된 궁극적 ‘하나 됨’의 가치

V. 나가는 말: 현재적 함의

• ABSTRACT •

An Analysis of Irenaeus's View of Christian Ethics in "Against Heresies": Approach to Ethical Philosophy

Ahn, Su-Kang (Lecturer, Baekseok University)

Taking an ethical philosophical approach, this study aims to analyze Irenaeus's view of Christian ethics shown in "Against Heresies". Christian ethics is a multi-faceted system in which a spiritual ethic focuses on morality, sanctification, piety, righteous life, and the imago Dei. I considered the main discourses on the Christian ethics in "Against Heresies" as follows. First, the article centers the view of confrontation between norms and situations, the uniqueness of the Bible as the standard of truth, the authority of the Bible, sense of normality in recapitulation theory. Second, the article treats with the view of deontological ethics and teleological ethics around the apostolic faith, gospel, and tradition. Third, the article concentrates on the view of community ethics around the unity of gospel and truth. Fourth, on the basis of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I proposed the reinforcement of ethics education, the activation of normative ethics, deontological ethics, and community ethics to Korean Christians.

Key words: Irenaeus, "Against Heresies", Christian Ethics, Ethical Philosophy, Church Community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에서는 교부 이레니우스(Irenaeus, 135-202)¹⁾의 “이단논박”(“Against Heresies”)²⁾에 나타난 기독교윤리관을 윤리철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키토(Emerita S. Quito)는 『윤리의 기초』(*Fundamentals of Ethics*)에서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윤리는 철학의 한 분야이며 철학을 훈련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했다.³⁾ 철학적 사고는 인간의 내면에 신조를 내면화하고, 내면화된 신조는 실천으로 외연(外延)된다는 점에서 기독교윤리를 철학적 조직화된 사고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작업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레니우스의 저서들 중 현재 전해오는 문헌은 “이단논박”과 “사도적 설교의 증명”(“Proof of Apostolic Preaching”)이며 이 외에 몇몇 단편들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이 중 “이단논박”은 반(反) 영지주의사상과 아울러 그의 윤리관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모이어(Elgin S. Moyer)는 이레니우스의 초기교회 역사적 위치에 대해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100-165) 이후 가장 빛나는 신앙의 계승자이자 신앙 고백

1) 이레니우스는 135년경 서머나(Smyrna)에서 출생하여 202년경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통치 시기에 순교했다. 서머나에서 성장하면서 속사도(續使徒) 폴리카르푸스(Polycarpus, 80-165)의 설교를 들었고, 리옹(Lyon)으로 이주하여 장로가 되었다. 포티누스(Pothinus, 87-177)를 계승하여 순교할 때까지 리옹의 감독직에 있었다. 초기교회의 전통과 윤리체제를 확립했고 발렌티누스주의(valentinianism)와 말시온주의(marcionism)에 대항하여 명저 “이단논박”을 저술했다. Hugo H. Hoever ed., *St. Joseph Daily Missal* (New York: Catholic Book Publishing Co., 1959), 927; 한철하, 『고대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43; 후스토 L. 곤잘레스, 이형기, 차종순 옮김, 『기독교사상사(1)』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0), 193-194.

2) Irenaeus, “Against Heresies,” *Early Christian Fathers*, trans. and ed. Cyril C. Richards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n.d.). 343-397.

3) Emerita S. Quito, *Fundamentals of Ethics* (Manila: De La Salle University Press, 1989), 3.

자였으며 사도시대의 정신을 후사도시대로 전수한 교부였다고 추앙한다.⁴⁾ 렌윅(Alexander M. Renwick)와 하만(Alexander M. Harman)은 이레니우스를 사도 요한 이래 초기 기독교의 전통을 가장 확고하게 정립한 유일한 위치(unique position)라고 했다.⁵⁾ 이레니우스는 2세기 이후 후세대 저명한 저술가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로마의 히폴리투스(Hippolytus, 170?-236?)와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155?-220?)도 그의 저술들을 활용했다.⁶⁾ 따라서 예수님의 직제자들인 사도들이 전수한 윤리를 분석하려면 첫 세대 교부 이레니우스의 윤리관을 고찰해야 한다. 그의 윤리관은 2세기 후반 초기교회 단계에서 정립되었지만 게쉬히테(Geschichte) 차원에서 오늘날 개신교의 윤리의식을 성찰하게 해주고 윤리개혁을 담보한 지침서로서 큰 가치가 있다.

‘윤리’(ethics)라는 용어는 어원적으로 헬라어 ‘에토스’(ἔθος)에서 파생되었으며 “전통, 관습, 실천, 습관, 전례, 도덕, 풍습, 규모, 행실”⁷⁾ 등 다양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키텔(Gerhard Kittel)의 『신약성경 신학사전』(T. D. N. T.)에서는 에토스를 “습관, 사용, 관습, 제의적 규례와 법”⁸⁾ 등으로 설명했고 이러한 용례들이 신약성경에 구사되어 있다. 머레이(John Murray)는 이 용어를 대대로 전수되는 전통 혹은 관습으로,⁹⁾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습관 또는 풍습이라고 이해했다.¹⁰⁾ 교회라는 신앙공

4) 엘진 S. 모이어, 광안전, 심재원 옮김, 『인물중심의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69.

5) Alexander M. Renwick, Alexander M. Harman, *The Story of the Church* (London: Inter-Varsity Press, 1989), 39.

6) Henry Chadwick, *The Early Church* (Baltimore: Penguin Books, 1993), 83.

7) 석원태, 『기독교윤리』 (서울: 경향문화사, 1987), 6.

8) Gerhard Kittel, ed., *T. D. N. T. (I)* trans. Geoffrey W. Bromil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74), 372-373.

9) 존 머레이, 김남식 옮김, 『기독교윤리』 (부산: 성암사, 1984), 137.

10) 윌리엄 바클레이, 강형길 옮김, 『바클레이의 기독교윤리』 (서울: 보이서사, 1988), 13.

동체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어 라스무센(Larry L. Rasmussen)과 버치(Bruce C. Birch)는 교회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전통을 수호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구스타프슨(James M. Gustafson)은 교회가 윤리 담론의 공동체(community of ethical discourse)라고 피력하여 교회공동체와 지도자들은 반드시 에토스를 기반으로 전통을 증시해야 한다고 했다.¹¹⁾ 본 연구에서는 이레니우스의 윤리관을 윤리철학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규범적 윤리’(normative ethics)이자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s)라는 점을 논증할 것이며 그가 주장한 ‘공동체윤리’(community ethics)의 속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규범적 윤리는 상황윤리(situation ethics)에, 의무론적 윤리는 목적론적 윤리(teleological ethics)에 맞대응 혹은 상치(相馳)되는 개념이다. 전제할 점으로, 본고에서 구사하는 ‘윤리철학’이란 용어는 기독교윤리를 분석함에 있어 철학적 사유로 접근하여 이를 성경적으로 확립하려는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 가령 윤리와 연계되는 ‘규범’, ‘상황’, ‘의무론’, ‘목적론’, ‘공동체’, ‘범주적 명령’, ‘아디아포라’ 등의 용어들은 철학적 성찰과 사고를 내포한다.¹²⁾

기독교는 초기에서 중세(590-1517)로 돌입한 이래 헬라 철학과 학술적으로 융합과정을 거쳐 차츰 비성경적 윤리관들이 형성되었다. 레이드(John H. Leith)가 지적한 것처럼 중세교회는 복음과 성경을 잃어버린 채 예전(禮典)과 교회의 결정을 증시하여 줄곧 카논(κανών, 正經)으로서의 성경을 경시하는 과오를 범해왔다.¹³⁾ 중세교회의 이러한 파행적 행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교부들이 정립했던 기독교윤리를 쇠퇴시키는 결

11) 원종홍, 『서양철학과 기독교철학』, 240-241, 243.

12) 기독교윤리학자 원종홍은 『서양철학과 기독교철학』에서 윤리철학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주제들을 기술했다. 원종홍, 『서양철학과 기독교철학』(서울: 수덕문화사, 1990), 240-259.

13) John H.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20-21.

과를 초래했으며 후일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광대한 요원의 불길을 지켰다. 루터(Martin Luther)는 교황, 종교회의, 전통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 선상에 올려놓은 로마 가톨릭에 맞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치로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와 더불어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설정했으며, 성경과 초기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회귀할 것을 호소했다.¹⁴⁾ 개혁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여 교황 체제를 부정하고 종교회의, 전통, 신학자들의 권위를 예외 없이 성경의 권위에 종속시켰다.¹⁵⁾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교부 이레니우스의 윤리관을 분석하는 것은 사적(史的)으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고민해야 할 점으로 최근 기독교윤리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근세와 현세에 치중하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초기교회 고전문헌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료 발굴과 탐색이 더욱 절실하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는 현재를 바르게 개척하려면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자산이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파로부터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사관(直線史觀)에 입각하여 자신의 첫 저작 『고백록』(*Confessions and Enchiridion*)에서 시간관을 이렇게 기술했다. “나는 과거와 미래의 옷감을 함께 직조(織造)하며 현재의 행동에 적용한다. 지금은 이 일을 해야지 혹은 저 일을 해야지 생각하면서 장차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견한다.”¹⁶⁾

그동안 이레니우스에 관한 연구로 주재광, 주재용, 임원택, 이호우, 박찬호, 김정숙, 허찬욱, 이상규, 김용준 등이 논문을 발표했다. 중심주제로서 기독교론, 성령론, 신론, 이단사상, 창조론, 신정론, 인간론 등에 역점

14) J. 보른캄, “복음주의 신앙의 근본원리,” 지원용 편, 『루터 사상의 진수』 (서울: 키클디아사, 1989), 44-68.

15) Alistai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104.

16) Augustinus, *Confessions and Enchiridion*, trans. Albert C. Outler (London: SCM Press Ltd, 1955), X. 8. 14.

을 두었으며 기독교윤리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¹⁷⁾ 본 연구에서는 이레니우스의 “이단논박”에 나타난 윤리관을 개혁주의 신학체계에 입각하여 윤리철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며, 오늘날 기독교윤리 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위주제들로서 ‘규범인가? 상황인가?’, ‘의무론적 윤리인가? 목적론적 윤리인가?’, 그리고 ‘공동체윤리의 어떤 면을 중시하는가?’ 등의 논제들을 별개의 장(章)들로 편성하여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규범인가? 상황인가?

1. 상치관계(相馳關係)로서의 ‘규범’과 ‘상황’

규범적 윤리는 질서와 절도를 갖춘 통일성 있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고최종의 지침서인 성문화된 성경의 가르침에 절대성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도덕생활을 규정짓는 선의 규범이고 그 의지는 상황을 초월하며 결코 변경될 수 없다는 고백을 담는다.¹⁸⁾ 이로써 규범적 윤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규범과 상황 사이에서 협상 혹은 절충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규범으로

17) 주재광, “이레니우스의 기독교-에큐메니칼 신학형성의 근거모색을 위하여,” 『신학연구』 11 (1968), 133-164; 주재용, “이레니우스의 사상: 성령론, 삼위일체론, 교회론, 성례전, 부활론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8 (1991), 5-19; 임원택, “이레니우스의 신론,” 『역사신학논총』 5 (2003), 53-74; 이호우, “『이단들에 대하여』 안에 나타난 이레니우스의 성경 사용에 관한 연구,” 『역사신학논총』 13 (2007), 193-223; 박찬호, “이레니우스의 창조론,” 『창조론오픈포럼』 5/1 (2011), 1-7; 김정숙, “이레니우스의 구원론적 은총의 창조신학: 생태학적 위기 시대에 이레니우스 신학을 읽다,” 『한국조직신학논총』 61 (2020), 7-46; 허찬욱, “이레네우스 신정론의 인간학적 함의,” 『가톨릭사상』 60 (2020), 45-73; 이상규, “이레네우스의 인간관,” 『복음과 문화』 26 (2021), 161-207; 이상규, “이레네우스의 신학적 인식론: ‘거짓영지’를 논박한 토대,” 『복음과 문화』 28 (2023), 179-238; 김용준, “이레니우스(Irenaeus of Lyon)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연구: ‘하나님의 두 손 교리’를 중심으로,” 『ACTS신학저널』 55 (2023), 9-44.

18) 명신홍, 『개혁과 윤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28-29.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었다고 본다. 반면, 상황윤리에서는 구체화된 콘텍스트에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최상의 가치와 명분을 사랑에 둔다. 따라서 굳이 성경의 가르침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결단하여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로써 충분하다는 것이다. 결국 규범적 윤리와 상황윤리에는 ‘성문화된 경전이나’ 아니면 ‘상황성이나’의 양자 간 첨예한 논쟁의 불씨가 잠재되어 있다. 상황윤리를 따르는 학자들로는 실존주의 사고를 중시하는 브루너(Emil Brunner)를 비롯하여 그리제바하(Eberhard Grisebach),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뮐러(Max Müller), 니버(Reinhold Niebuhr), 그로프(A. De Groeff), 플레처(Joseph Fletcher) 등이 있다. 본회퍼와 브루너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별하는 참된 지식의 원천은 성문화된 성경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순간적 영감에 의해 촉발된다고 주장한다. 그로프는 지나치게 법질서(law order)를 주장하여 성경의 충족성 자체를 부인한다.¹⁹⁾ 이들 중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플레처는 『상황윤리』(Situation Ethics)에서 최선의 규범인 사랑이야말로 모든 수단들과 방법들을 합리화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며, 가장 적합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 최선의 명분이 된다고 강변한다.²⁰⁾

규범이나 혹은 상황이나의 질문과 관련하여 규범에 가치를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텍스트보다는 콘텍스트에 비중을 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 양자 사이에 민감한 논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규범보다 상황성을 강조할 경우,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현실에 맞게 처신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벗어나 시류

19) 이상근, “기독교윤리학,” 총회목회신학원 편, 『성서연구와 신학』(서울: 유니온학술자료원, 1990), 75-76. 성경은 기독교윤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원칙, 원리, 방향 등을 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부와 지침서의 위치를 점한다. 김희수, “기독교윤리와 성경,” 『기독교사회윤리』 4 (2002), 133, 166.

20) 조셉 플레처, 김동수 옮김, 『상황윤리』(서울: 규문각, 1968), 164, 187.

에 동화되거나 세속화의 요청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윤리학자 원종홍은 규범과 상황 이 양자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전자는 ‘선(善)이 무엇이나?’라고 질문하는 유형에 해당되며, 후자는 상황성 즉 ‘지금 여기에서’라는 시공간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려는 유형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난제는 인간의 행위를 규정짓는 중요한 이행과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며 인간이 꾸준히 풀어나가야 할 윤리적 과업이라고 했다.²¹⁾

2. 진리의 잣대로서의 성경의 유일성

이레니우스는 진리의 표준 그 자체에 강조점을 두는가? 아니면 규범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성에 더 비중을 두는가? 그는 “이단논박” 서두인 제1권 제1장에서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 ‘진리’의 절대적 속성을 부각시켰다.²²⁾ 그는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 즉 영지주의에 속한 무리에 대하여 교활한 자들이자 불경스럽고, 신앙심 없이 지식만을 탐색하는 자들이며,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²³⁾ “그들의 주장은 마치 오류가 없기라도 하듯 벗겨지지도, 드러나지도, 폭로되지도 않도록 은폐되어 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교활하게도 매력적인 옷으로 단장되어 있고 진리 자체보다도 밖으로 드러난 외양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숙련된 진리인 것처럼 비취진다.”²⁴⁾ 그는 서론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지주의자들의 허황된 사설(邪說)들이 혼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분리하여 양극화했으며 끝만 번드레한 영지주의자들의 수사(修辭), 사악한 해설, 거짓된 지식을 일체 용납하

21) 원종홍, 『서양철학과 기독교철학』, 244.

22) Irenaeus, “Against Heresies,” I. 1.

23) 위의 글.

24) 위의 글, I. 2.

지 않았다.²⁵⁾ 그는 참과 거짓을 판가름하기 위한 절대적인 잣대(표준)를 고수했으며, 이 유일무이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²⁶⁾

쏘튼(Lionel S. Thornton)은 이레니우스의 신학 형성에 대해 “성 이레니우스와 현대신학”(“St. Irenaeus and Contemporary Theology”)에서 자신의 사적인 견해보다는 성경과 교회의 교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신학적 갱신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다고 주장했다.²⁷⁾ 켈리(John N. D. Kelly)는 『고대 기독교교리사』(*Early Christian doctrines*)에서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정통성을 보여주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했다.²⁸⁾ 이레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뿌리를 둔 전통은 오직 하나이며 그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²⁹⁾ 또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이 신앙의 기초와 기둥이 되도록 성경으로 기록하여 전수해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³⁰⁾ 그는 영지주의의 거두 마르키온(Marcion)이 복음서와 바울서신을 임의로 수정하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비판하여 사도들이 남긴 성문화된 성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³¹⁾ 이는 그가 모든 판단의 잣대를 사도들의 가르침에 두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규범의식을 보여준다.

25) 위의 글.

26) 신약 정경 27권이 결정된 것은 397년, 417년, 419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였지만 실제 신약 목록 27권은 종교회의 이전부터 통용되고 있었으며 정경 요건 중 하나가 사도성, 영감성, 통일성과 아울러 ‘보편성’(당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성경)이었다. 이종윤, 『신약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86-87.

27)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1)』, 207. 재인용.

28) 존 N. D. 켈리, 김광식 옮김, 『고대기독교 교리사』 (서울: 맥밀란, 1988), 50.

29) Irenaeus, “Against Heresies,” I. 10. 2.

30) 위의 글, III. 1. 1.

31) 위의 글, III. 11. 7.

복음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의 상태(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등 4복음서-연구자 주에서 그 수가 더해질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네 지역이고 네 방향의 주된 바람이 있던 이래로 교회가 모든 세상에 전파되는 동안 교회의 기둥과 기초(the pillar and foundation of the Church)는 복음이다. (중략) 말씀은 모든 것들을 지으신 조물주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케루빔(cherubim)(천사들-연구자 주 위에 좌정하셔서 모든 것들을 유지하신다.³²⁾

변증학자 반틸(Cornelius Van Til)이 언급했듯이 인간이란 스스로 모든 지식을 파악하고 통찰한다고 자부하는 자만심을 품은 존재이며 자기만의 이상을 고안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³³⁾ 이레니우스는 복음서의 통일성과 그 수를 파괴하려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신성을 모독한 자들이라고 질타했으며 성문화된 4복음서만을 진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자들, 심지어 뻔뻔한 자들도 있으며 이런 자들은 복음의 양식을 파괴하고 네 개 이상 혹은 그 이하 수의 복음서를 내놓는다. (중략) 발렌티누스(Valentinus)를 추종하는 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저작들을 내놓으며 실상 존재하는 것(사복음서-연구자 주)보다 자기들은 더 많은 복음서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중략) 이들의 비복음서는 신성을 모독하기에 충분하다.”³⁴⁾ 그는 성문화된 원전을 파괴하고 자의적으로 왜곡을 일삼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 많은 사람을 망치는 자들, 유희하는 자들, 파괴자들, 하나님을 헐뜯는 자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 ‘진리를 더럽히는 자들,

32) 위의 글, III, 11, 8. 이레니우스는 바벨론 그밭강 가에서 환상을 보았다. 그는 에스겔 1장 10절에 나타난 ‘사자’는 마태복음에, ‘소’는 마가복음에, ‘인자’는 누가복음에, ‘독수리’는 요한복음에 적용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네 개의 복음서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33) Cornelius Van Til, *The Defence of the Faith*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15.

34) Irenaeus, “Against Heresies,” III, 11, 9.

매혹적인 가르침으로 선을 가장하는 자들,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 배교의 원리를 창출하는 자들, 불의 형벌을 받게 될 자들이라고 단죄했다.³⁵⁾

3. 성경의 권위에 대한 변증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곧 진리 그 자체를 경멸하는 행동이자 윤리의 지표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언(定言)은 성경의 권위를 자증하는 절대적인 초석이 된다.³⁶⁾ 칼빈(John Calvin)은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다른 길이 있다고 공상하는 신비주의자들에 대해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광포로 날뛰는 자들이며 모든 경건의 원리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³⁷⁾ 이레니우스는 마르키온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임의로 가감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판이한 내용으로 변경시킨 점, 그리고 바울서신까지 상당부분 수정을 기한 사실을 지적했다. “마르키온은 복음을 전달해준 사도들보다도 자신이 더 진실하다고 주장하여 자기 제자들을 설득했고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단순하게 복음의 단편만을 전했다. 그는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바울서신을 절취하고 무엇이든지 바울이 명백하게 말한 내용들에 대해 (중략) 사도의 가르침이면 무엇이든지 다 제거하려고 한다.”³⁸⁾

또한 이레니우스는 복음서에 관한 논지를 좀 더 확장하여 마르키온이

35) 위의 글, I. 1; I. 27. 4; III. 4. 2.

36) 존 H. 게르스트너, “교회의 성경 영감 교리,” 제임스 M. 보이스 편, 황영철 옮김, 『성경의 무오성』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3), 25.

3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 9. 1.

38) Irenaeus, “Against Heresies,” I. 27. 2.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양식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사도들의 복음을 거부했고 감히 하나님께 맞서 그의 섭리를 무효화하려는 해괴한 노력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마르키온과 추종자들-연구자 주]은 복음의 양식을 파괴시키고 네 개 이상 혹은 그 이하의 복음서를 내놓는다. -전에는 그들이 진리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효화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키온은 모든 복음[사도들이 전한 복음-연구자 주]을 거절했다.”³⁹⁾

4. 총괄갱신교리(總括更新教理)에 나타난 규범의식

총괄갱신교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진술한 만유(萬有)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표현에 깊이 있게 함축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의 ‘통일’은 아담 범죄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온전한 형태의 만유의 통일(ἀνακεῶ ἀλαίωσις)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이 ‘아나케팔라이오시스’의 개념은 이레니우스가 주창한 총괄갱신교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된다. 또한 이 교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신천신지의 도래와 관련된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종말론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레니우스는 총괄갱신교리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갱신의 단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의 표준에 대해 이렇게 논했다. “배교행위는 의롭지 못하게 우리에게 포악한 행위를 취한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종용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요구하시고 자신의 제자들로 삼으신다. (중략)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행하셨으며 (중략) 정의의 표준을 어기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옛 피조물들도 하나

39) 위의 글, III, 11, 9.

님의 의(義)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⁴⁰⁾ 이처럼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고유한 능력과 정의로운 속성을 고백했으며 하나님께서도 의의 표준이 되는 말씀을 스스로 어기시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불변의 약속이라는 내적 의미를 함축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모든 피조물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도 말씀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본혜퍼와 브루너는 율법은 단지 큰 틀에서 일반적인 가이드만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관한 참된 지식은 특정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영감으로 일어난다고 했고, 플레처는 절대적 법칙들을 부정하고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 된다고 했으며, 그로프는 성경에 포함된 계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들 모두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함으로써 권위를 훼손시켰다.⁴¹⁾ 그러나 이레니우스는 성문화된 성경만이 최고최종의 규범적 권위를 지니며 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자들인 사도들이 후대에 남겨준 유일한 경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을 빌미로 이미 제정된 규범을 경시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설화하여 철저하게 규범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그는 속사도(續使徒) 폴리카르푸스(Polycarpus, 69-155)의 직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사도 요한-속사도 폴리카르푸스-교부 이레니우스’의 계보에 속해 있다. 그의 확고한 규범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요한, 스승인 폴리카르푸스를 거쳐 당대에는 이레니우스 자신에게로 직접 계승되었고 영주주의자들의 이단사상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는 절대적인 동인이 되었다.

40) Irenaeus, “Against Heresies,” V. 1. 1.

41) 이상근, “기독교윤리학,” 75.

III. 의무론적 윤리인가? 목적론적 윤리인가?

1. 상치관계로서의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

‘의무’란 사전적 정의로서 도덕적 필연성을 갖는 요구가 인간의 행위나 의지에 영향력을 가하는 강제성 또는 구속성을 가리킨다.⁴²⁾ 따라서 의무론적 윤리란 사고와 행동을 규정짓는 법조문 자체를 중시하여 일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는 반드시 윤리적으로 엄수해야 할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가치를 둔다. 이러한 원칙은 일의 결과로서 좋은 결실을 창출하든 아니든 그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무 그 자체를 중시한다. 의무론적 윤리관은 칸트(Immanuel Kant)의 범주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 규정하듯 ‘도덕법-명령-의무-복종’이라는 일련의 정형화된 체제를 고수한다. 칸트는 도덕적인 행동들을 규정하는 근본원리들에 대하여 가언명법(假言命法) 즉 “만일 ~이라면 ~해야 한다”라는 방식이 아닌, 범주적 명령 즉 한계선(울타리)을 지정하여 “필히 ~을 준수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목적론적 윤리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주장했듯이 모든 행동이 선(善)을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정보다는 최종 목적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⁴³⁾ 그는 모든 피조물은 각기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 움직이며 이와 같은 원리로 인간 역시 존재목적에 부합하도록 뭔가를 달성해야 하고 이러한 최종적인 성취를 가리켜 선이라고 해석했다.⁴⁴⁾ 목적론적 윤리관을 지향하는 주목할 만한 이념체계로서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들 수 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모토를 지고의 선으로 삼았다.⁴⁵⁾ 결국 의무론적 윤리와

42) 편집부 편,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1987), 867.

43) 원종홍, 『서양철학과 기독교철학』, 247-249.

44) 김태길, 『윤리학』 (서울: 박영사, 1994), 34.

목적론적 윤리 양자의 가치는 과정(준법)이나 아니면 목적(결과)이나의 질문에 결부된다. 그런데 주목할 점으로, 이레니우스는 두 윤리관을 상치 관계에서 파악하지 않고 독특하게 ‘상합(相合)과 충족의 원리’를 적용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장 제3절 ‘두 윤리관, 양자의 상합과 충족의 원리’에서 별도로 논할 것이다.

2. 사도적 진리 계승의 중요성

1) 진리의 사도적 계승

이레니우스는 일을 성취해가는 과정과 절차 그 자체에 비중을 두는가? 아니면 최종 결과물로 나타난 실적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본 연구자는 앞서 이레니우스의 규범적 사고에 기초하여 상황성(컨텍스트)이 규범을 초월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의 입장에서 상황은 규범에 종속된다. 그의 규범적 사상체계는 본질적으로 의무론적 윤리관을 지향한다. 왜냐하면 이레니우스는 진리 그 자체를 실천과 행위를 규정하는 법으로 인식 하며, 마땅히 준수해야 할 절대적인 잣대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단논박” 서론에서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 즉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고 도리어 불필요한 논쟁들만 야기할 뿐이라고 했다.⁴⁵⁾ 또한 오류는 진리로 탈바꿈할 수 없고 속성상 그 자체로서 끝까지 오류일 뿐이라고 했다.⁴⁷⁾ 부연하여 이단자들의 견해는 진리가 아니기에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언쟁을 일삼는 모순된 작

45) 원종홍, 『서양철학과 기독교철학』, 9.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행복에 관한 기독교적인 의미와 공리주의적인 의미 양자를 비교하여 숙고해야 한다. 성신형, “공리주의 행복론에 대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접근-행복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5 (2013), 88.

46) Irenaeus, “Against Heresies,” I. 1.

47) 위의 글, I. 2.

태를 보여준다고 했다.⁴⁸⁾ 따라서 그의 소신에 따르면 거짓은 결코 진리와 동반자가 될 수 없다.⁴⁹⁾ 더군다나 이들이 내놓는 저작물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무오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한 거짓문서들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복음서와 바울서신들을 임의로 수정한 마르키온을 논박했고 정죄했으며 이들의 저작들에 대해서는 사탄이 풀어놓은 독약이자 배교의 원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⁵⁰⁾

이레니우스는 발렌티누스와 마르키온 등의 이단사상을 논박하던 중 서머나 감독이자 자신의 스승이었던 폴리카르푸스가 한결같이 진리를 고수했던 일관된 자세에 대해,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수한 경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을 뿐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된 폴리카르푸스, 나는 어렸을 때 직접 그를 보았다. 그는 오랜 기간 생존했고 고령의 나이에 영광스럽고 위대한 순교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항상 그가 사도들로부터 배운 교회가 지속적으로 후대에 그 지식을 넘겨주어야 하기에 오직 진리가 되는 사실들만을 가르쳤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폴리카르푸스의 가르침을 계승해왔고 지금도 이 증거를 지니고 있다. 폴리카르푸스는 발렌티누스, 마르키온, 다른 그릇된 사상가들과는 달리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의지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아니케투스(Anicetus) 당시 로마를 방문했을 때 사도들로부터 받은 유일무이한 진리, 교회에 의해 계승된 동일한 진리를 선언했으며 이로써 수많은 이단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전향시켰다.⁵¹⁾

48) 위의 글, I. 11. 1.

49) 위의 글, III. 5. 1.

50) 위의 글, I. 27. 2-4.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개념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운 교회, 속사도 폴리카르푸스에게 전수된 진리, 가르침의 계승, 교회에 의해 계승된 동일한 진리, 동일한 진리의 선포, 이단자들의 전향 등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결같이 '진리의 사도적 계승'이라는 논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레니우스는 이 논증을 통해 사도적 계승과 무관한 모든 주장들은 일체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신념을 분명하게 밝혔다.

2) 진리 계승의 계보

이레니우스의 진리 계승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적인 계보는 전술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사도 요한-속사도 폴리카르푸스-교부 이레니우스'로 구축된 일련의 흐름에 근거한다. 특별히 이레니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자들인 사도들의 위치에 큰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운 분들이며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후세대에 오류 없는 신앙의 기초와 기둥을 물려 준 위대한 선진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⁵²⁾ 그는 이 계승에 관해 큰 틀에서 '사도들-리누스-아넨클레투스-클레멘트...엘루테루스로 이어지는, 사도들 이후 리누스로부터 엘루테루스까지 무려 20대에 이르는 계보에 주목했다. 그가 소개한 계보의 궁극적인 의도와 취지는 오직 '사도적 계승' 그 자체에 있다.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어 설립했고 그들은 리누스(Linus)에게 감독직의 사역을 계승해 주었다. (중략) 아넨클레투스(Anencletus)는 그를 계승했다. 아넨클레투스 이후에는 클레멘트(Clement)가 사도들로부터의 세 번째 위치로 감독직을 계승했다. 그는 사도들을 보았고 그들과 교체했으며 그들의 전파하는 음성을 그의 귀에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그의 목전에 여전히 간직했

51) 위의 글, III. 3. 4.

52) 위의 글, III. 1. 1.

다. (중략) 엘루테루스(Elutherus)는 사도들로부터 스무 번째로 감독직에 올랐다. 이러한 질서와 승계는 교회에서의 사도적 전통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전파된 진리는 오늘날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전달되었다. 이는 하나요동일한 내용 전수 연구자 주 교회에서 사도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진리 안에서 전해진, 같은 생명을 주는 믿음에 관한 모든 진술이다.⁵³⁾

이 인용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 계보가 초기교회 설립의 요체가 되는 전파, 계승, 선대와 후대 간의 연속성, 사도들의 음성, 질서와 승계, 사도적 전통, 진리, 계보를 통한 전수, 생명, 믿음 등의 개념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레니우스가 소개한 20대에 이르는 감독직 계보는 이후에 교의로 정착된 교황수위권(베드로의 교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⁵⁴⁾ 그는 단지 성경을 훼손한 영주주의를 논박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직제자들인 사도들의 가르침이 왜곡되지 않고 순수하게 후대에 전수되기를 열망했다. 그래서 대대로 진리를 수호했다는 차원에서 이 계보의 맥락을 중시했던 것이지 수위권 논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두 윤리관, 양자의 상합(相合)과 총족의 원리

이상의 논지들로 미루어 이레니우스는 분명히 의무론적 윤리를 지향한다. 그런데 그는 의무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결과에도 오류가 개입될 수 없고 그 결과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양자 총족의 원리를 채택함으로써 두 윤리관을 한 지평 위에 포괄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53) 위의 글, III. 3. 3.

54) 키프리아누스는 베드로가 교좌의 우선권을 가진 사도이며 이 교좌가 교회설립의 기초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교좌를 부정하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자라고 했다. Caecilius Cyprianus, “The Unity of the Catholicism,” *Early Latin Theology*, trans. and ed. S. L. Greenslad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142(Appendix: The Primary Text of De Unitate).

두 윤리관을 상치관계로 보지 않고 상합과 총족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 단서로서 복음 및 성경,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은 그 자체가 진리이고 무오성의 속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 또한 결코 오류일 수 없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의무론적 윤리체계로 계승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단초로 삼아 발렌티누스주의자들을 왜 진리로 비판해야만 하는지 이렇게 소신을 밝혔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발렌티누스 제자들의 주석들을 읽은 후에, 그리고 그들 중에 속한 어떤 자들을 실제로 만났고, 그리하여 그들의 관점을 섭렵한 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놀랍고 깊은 신비들을 당신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그 놀라움과 신비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두뇌가 충분히 깨끗하지 못해서이다 이는 풍자적 표현임 연구자 주. 당신은 이러한 내용들[비성경적 오류투성이의 내용들-연구자 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만 당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명백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며, 끝없이 어리석고 방자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자들의 행태를 경계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위의 인용문에서 이레니우스는 자신이 신봉하는 진리와 그 체계에 비추어 발렌티누스의 사상체계는 온통 오류투성이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악할 수밖에 없으며 이점을 경계하기 위해 “이단논박”을 저술했다는 의지를 담았다. 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이 하나이며 온 세계에 동일하게 비추는 것처럼 사도들이 전수한 진리는 세상 모든 곳에서 빛날 것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다.⁵⁶⁾

55) Irenaeus, “Against Heresies,” I. 2.

56) 위의 글, I. 10, 2.

이레니우스는 진리가 아닌 것을 신봉하고 가르치는 이단자들은 단지 질병과 무지라는 사악한 결과만을 산출한다고 했다. 따라서 과정이 악하면 당연히 그 결과도 악할 것이라는, 그리고 과정이 선하면 당연히 그 결과도 선할 것이라는 소신을 견지했다. “이런 영지주의자는 연구자 주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행위자가 아니라 질병과 무지를 악화시키는 자이다. 누구든지 소경을 실족하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에 비추어 율법은 그 자체로서 그런 자들보다 훨씬 더 진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략) 그들사도들 -연구자 주는 자신들이 이전에 취하던 견해에 만족하지 않았고 명백한 진리에 기초하여 가르쳤다.”⁵⁷⁾ 이로 미루어 이레니우스의 윤리관은 의무론적이며 동시에 목적론적이다. 그는 두 윤리를 상치관계에 두지 않았고 한 지평 위에 나란히 입체화하여 조명함으로써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이해했다. 이로써 ‘진리’ 그 자체는 필연적으로 ‘진리’ 그 자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그의 신념은 마샬(L. H. Marshall)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관과도 상통한다. 마샬은 예수님의 윤리를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의 종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했다. “예수님의 윤리는 의무론적인 윤리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론적인 윤리로도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되는 의무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란 목표양자를 종합하기 때문이다.”⁵⁸⁾

IV. 공동체윤리의 어떤 면을 중시하는가?

1. 공동체윤리에 대한 견해들

기독교윤리에서 신자들로 구성된 신앙공동체가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57) 위의 글, III. 5. 2.

58) 원종홍, 『서양철학과 기독교철학』, 255-256. 재인용.

할 중요한 특질은 공동체윤리이다. 기독교공동체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고백을 통해 ‘congregation’(회중)의 가치를 지닌 하나의 교회를 지향해야 하며 신자들의 통합, 친밀감, 상호 보완을 추구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최태연은 역사적으로 제시된 기독교공동체의 이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기독교공동체는 창조자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역사 속에 성육신하셔서 교회공동체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활동하시는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통합과 친밀함과 상호 보완이 가능한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했다.”⁵⁹⁾

기독교 공동체윤리를 모색한 주목할 만한 담론들로서 감리교 개척자 웨슬리, 레만(Paul Lehmann), 구스타프슨, 부루너 등의 견해를 들 수 있다. 웨슬리는 교회론에서 코이노이아로서의 신앙공동체를 강조했으며 이를 윤리적 공동체인 교회가 갖추어야 할 최상의 속성으로 보았다.⁶⁰⁾ 레만 역시 삶의 콘텍스트에 위치한 교회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필연적 속성으로서 코이노니아의 윤리를 강조했다. 구스타프슨은 그리스도인들의 단체를 윤리적 담론이 활성화되어야 할 공동체로 보았으며, 브루너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공동체이자 또한 부지런히 사회에 침투하여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했다.⁶¹⁾ 스미스(C. Christopher Smith)와 패티슨(John Pattison)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뿌리내리기 즉 정착과 소속감을 강조했다.⁶²⁾ 이처럼 공동체윤리는 코이노니아, 윤리적 담론, 사회봉사의 사명, 소속감 등 다중적인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공동체윤리가 지구촌시대의 윤

59) 최태연, “한국 유교와 기독교의 공동체윤리,” 『기독교사회윤리』 6 (2003), 179.

60) 레온 O. 힌슨, 이희숙 옮김, 『웨슬리의 윤리사상』 (서울: 전광사, 1987), 162-163.

61) 원종홍, 『서양철학과 기독교철학』, 240-242.

62) C. 크리스토퍼 스미스, 존 패티슨, 김윤희 옮김, 『슬로저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91-103.

리적 과업을 짊어져야 할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소 공동체 단위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과 사회, 민족과 국가,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장되어가는 추세이다.⁶³⁾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신앙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동일한 공동체에 소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동일한 계명과 자격요건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⁶⁴⁾ 그런데 집단 체제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조직된 공동체라는 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하나 됨의 결속을 해치는 부정적인 속성들도 분출되기 마련이다. 가장 심각하게 표출되는 현상으로 니버(Reinhold Niebuhr)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에서 주장했듯이 인간 개개인은 도덕성을 지녔을지라도 공동체는 집단 이기주의 체제로 변질되어 비도덕적 사회(*immoral society*)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개인적 이기심은 개별적으로 온건하게 나타날 때보다 연합하여 공동의 충동으로 나타날 때 더욱 생동력 있게 표현되고 한층 더 축적되는 효과를 야기한다.”⁶⁵⁾ 따라서 공동체는 그만큼 윤리의식이 선명해야만 하고 끊임없이 공동체윤리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63) 이보민, 『기독교사회윤리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299-400; 이장형, 『글로벌 시대의 기독교윤리』 (성남: 북코리아, 2012), 235-300.

64) 유경동, “주기도문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T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ὸς ἡμῖν σήμερον)’와 기독교 공동체 윤리,” 『영산신학저널』 54 (2020), 22.

65)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4), xii(introduction).

2. 진리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하는 교회공동체

이레니우스의 공동체윤리는 무엇보다도 ‘하나 됨’에 지고의 가치를 둔다. 이는 보편성을 갖는 하나의 교회(one catholic church)를 실현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사도들과 이들을 계승한 믿음의 후예들은 매우 신중하여 진리를 굽게 하는 자들과는 일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⁶⁶⁾ 왜냐하면 진리에 관한한 필연적으로 하나의 본질,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 됨의 교회공동체를 구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레니우스는 만일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신자들은 손으로 귀를 막고 단호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는 사도적 전통과 가르침에 따라 성화의 삶에 솔선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이들의 믿음, 그리고 가장 현명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들은 의롭고 정결하며 지혜로운 삶을 추구한다. 만일 그 누가 이들에게 이단사상을 전한다면 이들은 즉시 손으로 귀를 막고 그런 자를 멀리 대할 것이며 그러한 불경스런 강론을 듣는 일을 참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사도들이 전수해준 오랜 전통을 고수하고 있기에 이단자들이 어떤 감동적인 말을 전하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⁶⁷⁾

한편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악마들)과 동질의 무리로 간주하여 마땅히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는 이들을 겨냥하여 불경스럽고 사악하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신성 모독자들로 규정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교회법적인 관점에서 숙고한다면 엄격한 출교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의롭고 거

66) Irenaeus, “Against Heresies,” III, 1, 1.

67) 위의 글, III, 4, 2.

룩하며 계명을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악한 영의 권세자들과 범죄하여 배교의 길에 떨어진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중 불경하고 사악하며 무법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영원한 불로 내치실 것이다. 그러나 의롭고 거룩하며 계명을 수호하는 자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중략) 그의 은혜로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실 것이며 영원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⁶⁸⁾

이레니우스는 심지어 교회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지도교역자들 세계에 서조차도 영적 분열의 징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이들에게 사도적 신앙과 전통을 자의적으로 수정하거나 변형시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교회 안에서 통할하는 자들[교회지도자들-연구자] 중 그 누구도, 말의 능력에 능숙한 자라도 결코 다른 어떤 것[사도적 진리와 무관한 것-연구자] 주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스승[사도-연구자] 주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말에 약한 자 역시 사도적 전통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이며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것[사도적 신앙과 전통-연구자] 주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에 덧붙일 수 없으며, 말을 적게 하는 자 역시 그것을 감해서는 안 된다.⁶⁹⁾

이처럼 이레니우스는 교회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고결한 사도적 전통과 윤리 체제 안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림으로써 온전하게 하나됨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기원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어구들은 전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도들, 사도적 전통, 하나인 믿음과 그 믿음의 동질성 등이다. 이처럼 이레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들인 사도들

68) 위의 글, 1. 10. 1.

69) 위의 글, 1. 10. 2.

이 진정한 교사들이며 교회공동체는 이들이 전해준 가르침과 전통을 보전해야 하고 이로써 동일한 믿음,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3.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성’과 ‘하나 됨’의 구심점

이레니우스는 전술한 진리 안에서 ‘하나 됨’과 아울러 “이단논박” 제1권 10장 1절에서는 복음에 입각한 신앙이 기독교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속성이며 이를 기반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⁷⁰⁾ 그는 교회공동체 윤리를 형성하는 구심점은 순수한 복음이며 기독교 공동체는 이 복음이라는 토양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신앙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온 세상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설립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위치한 교회이건 그 기초와 기둥은 ‘복음’이라고 했다.⁷¹⁾ 그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독일, 이베리아, 켈트, 이집트, 리비아 등 지상의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져 거주해도 모두가 동일한 한 복음 안에 속해있기에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진 지체들이라고 했으며, 이로써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유구한 생명력이 대대로 보존되고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복음전파와 신앙,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수립된 전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one and same’ 즉 하나이며 지고의 동일한 영적 자산이라고 설파했다.

세상의 언어들(다양한 민족이라는 의미-연구자 쥐은 제각기 다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의 의미는 하나이며 동일하다 (one and same). 독일에 설립된 교회들이 다른 어떤 전통을 믿고 물려 준

70) 위의 글, I, 10, 1.

71) 위의 글, III, 11, 8.

것이 아니다. 또한 이베리아, 켈트 중의 교회들, 이집트, 리비아, 세상의 중심부에 세워진 교회들 또한 마찬가지 원리이다.⁷²⁾

내가 말해온 것처럼 교회들은 이 전파복음전파-연구자 주와 믿음을 받았고 사도들로부터 연구자 주 비록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마치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신중을 기해 그것(복음전파와 믿음-연구자 주)을 소유하고 있다. 어디에 있는 교회이든지 동일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믿으며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진 것처럼 조화 있게 그것들을 전하며 교회에 물려준다.⁷³⁾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복음전파, 믿음, 전통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신앙공동체로 결속하여 동질성을 추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그는 교회공동체가 목표지향성, 가치관, 윤리관이 부재하거나 결핍된 ‘aggregation’으로서의 집단이 아니라 분명하게 목표지향성, 가치관, 윤리관을 정립한 ‘congregation’으로서의 회중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했다. 그는 교회가 ‘congregation’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로 결속을 이루지 못한다면 당대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강력한 도전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내분을 야기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러한 사례는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교회의 분쟁을 통해서도 깊이 있게 음미해볼 수 있다. 바울이 제3차 선교사역을 감당하던 주후 50년대, 고린도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이런 현상은 고질병으로 고착되었으며 40여년 후 90년대 중반에 클레멘트(Clement of Rome)가 고린도에 보낸 서신 “The Letter of the Church of Rome to the Church of Corinth”에 의하면 고린도교회는 또 다시 분열하여 다툼이 끊

72) 위의 글, 1, 10, 2.

73) 위의 글.

이지 않았다.⁷⁴⁾

4. 총괄갱신교리에 함축된 궁극적 ‘하나 됨’의 가치

총괄갱신교리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2장 4절 ‘총괄갱신교리에 나타난 규범의식’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이레니우스는 윤리적 공동체에서 추구되어야 할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강조했으며, 아울러 인간의 품성과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갱신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논증하는 대목에서 의미 있는 교훈들을 제시해주었다. 이 교리는 에베소서 1장 10절(“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에 기록된 ‘아나케팔라이오시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에 근거를 둔다. 흠정역(KJV)에는 이 용어가 ‘gather-together’(집합)로, NASB에는 ‘the summing up of all things’(모든 것들의 총합)로, NIV에는 ‘fulfillment’(성취, 실현)로 번역되었다.

이레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총괄갱신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명백하게 그 자신이 지으신 세계에 오셔서 자신이 세우신 창조질서에 따라 인간으로 출생하셨다. 그리고 그 질서를 스스로 짊어지심으로써 한 나무선악과 나무-연구자 쥐와 관계하여 불순종으로 행했던 것을 그의 순종에 의해 나무십자가-연구자 쥐 위에서 새롭게 하셨다.”⁷⁵⁾ 브로밀리(Geoffrey W. Bromily)는 이 교리가 갖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그리고 영적 코이노니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이

74) Clement, “The Letter of the Church of Rome to the Church of Corinth,” I. *Early Christian Fathers*, trans. and ed. Cyril C. Richards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n.d.), 43-44.

75) Irenaeus, “Against Heresies,” III, 3. 2; V, 19. 1.

사실을 말해준다고 했다.⁷⁶⁾ 한편 니이브(Juergen L. Neve)는 총괄갱신교리와 관련하여 인류 시조 아담이 행위언약을 파기한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레니우스의 견해를 지지했다.⁷⁷⁾ 박용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교리가 갖는 의의에 대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현현되는 갱신이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했다.⁷⁸⁾ 이렇듯 총괄갱신교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 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야 한다는 성화의 관점에서 큰 가치를 발휘한다.

V. 나가는 말: 현재적 함의

지금까지 이레니우스의 “이단논박”에 나타난 기독교윤리관을 윤리철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고찰했다. 주요 주제들로 ‘규범인가? 상황인가?’, ‘의무론적 윤리인가? 목적론적 윤리인가?’, 그리고 ‘공동체윤리의 어떤 면을 중시하는가?’ 등의 논제들을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주요 논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레니우스는 상치관계로서의 규범과 상황의 문제에서 철저히 규범의 절대성을 천명했다. 그는 유일한 진리의 잣대는 성경이라고 했으며 성경의 권위는 최고최종의 위치를 점한다고 했다. 또한 총괄갱신교리를 논하는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의 표준에 대한 논점들을 피력했다.

둘째, 그는 사도적 계승과 진리 계승의 계보를 논하여 이들이 전수한 신앙과 전통을 진리의 시금석으로 삼았다. 그는 사도들 이후 리누스로부

76) 제프리 W. 브로밀리, 김혜연 옮김, 『역사신학개론』 (서울: 은성, 1987), 51.

77) 위르겐 L. 니이브, 서남동 옮김, 『기독교교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318.

78) 박용규, 『초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234-235.

터 엘루테루스까지 이어지는 감독직의 계보를 제시하여 사도적 신앙과 전통에 주목했다. 그는 의무론적 윤리에 충실하면 목적론적 윤리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양자의 상합과 충족의 원리를 논증했다.

셋째, 공동체윤리에서는 교회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한다는 점,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성과 하나 됨의 구심점을 구축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 총괄갱신교리에 함축된 궁극적 하나 됨의 가치를 논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의 과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본고를 마치면서 오늘날 한국기독교의 기독교윤리를 성찰하기 위한 취지에서 힘써 실천해야 할 두 가지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레니우스 당대 기독교와 현 한국기독교의 정황은 상이하지만 그의 윤리관을 현 시대상에 비추어 적용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는 윤리의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이를 체질화해야 할 시대적 과업에 직면해있다. 당대에는 영지주의가 큰 걸림돌이었다면 현 시대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일찍이 사회학자 오그번(William F. Ogburn)은 명저 『사회변동』(Social Change, 1922)⁷⁹⁾을 통해 이 문제를 현대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난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의 논지는 물질 영역인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반면에 정신 영역인 문화는 점차 간극이 벌어져 양극화의 괴리현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방점을 둔다. 오늘날 한국기독교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음 내면과 외적행위의 원천이 되는 윤리분야는 점차 외면을 당하는 형국에 처해 있다. 급세기에 진입하여 한국사회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용적, 과학적, 수리

79) William F. Ogburn, *Social change: with respect to culture and original nature* (New York: Viking Press, 1950), 1-393.

적(數理的), 논리적, 학술적, 실증적 사고를 중시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되면서 자동화 공정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삶의 중심부에 침투해가고 있다.⁸⁰⁾ 더군다나 한국기독교는 3년 여간에 걸쳐 코로나(COVID-19) 현상을 겪는 동안 영성, 경건, 성화 등이 피해를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윤리 회복에 출선해야 할 시기에 직면해있다. 문시영은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를 지적하여 “시민의 소환: 교회의 윤리부재”⁸¹⁾라고 규정지었다. 정창균은 성경적 교회개혁의 시급성을 염두에 두어 “신자로 신자되게, 교회로 교회되게!”⁸²⁾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한국기독교는 성경적 윤리관을 확립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심성 내면과 실천적 행위를 개혁하도록 교육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윤리를 철학적으로 조직화하여 분석했다. 이 점과 연계하여 한국기독교는 각별히 규범적 윤리, 의무론적 윤리, 공동체윤리 등에 주목하여 성실하게 시의성 있는 담론을 창출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관계없이 누구나 현 시대의 시류와 콘텍스트에 주목하여 실용주의, 상황윤리, 합리주의, 실증주의, 과학주의 등 이성적 사고를 중시하는 추세이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윤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규범보다는 상황을, 의무보다는 목적을,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여 상황윤리, 목적론적 윤리, 개인윤리에 경도되고 있다. 이한수는 가치규범이 부재한 시기에 기독교가 발휘해야 할 기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후 전통적인 사회와 판이한 사회로 변해 가면서 전통종교 윤리의 규범은 무너지고 그 빈자리

80) 안수강, 이장형, “일제강점기 기독교면려회의 노선과 기독교윤리적 함의-기관지 「眞生」 창간호(1925년 9월)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4 (2019), 369-370.

81) 문시영, 『교회의 윤리 개혁을 향하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9.

82) 정창균, “한국교회, 절망과 소망의 이중성,” 홍동필 편, 『교회는 개혁되어야』 (수원: 영음사, 2015), 220.

에 다른 대체 가치규범이 들어서지 못한 전환기적 위기 시대를 맞고 있다. 위기라는 것은 바로 그 빈자리에 다른 건전한 가치규범이 들어서지 못한 채 혼란과 극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향락문화와 물질만능주의만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⁸³⁾ 한국기독교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혼란스런 삶의 콘텍스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윤리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체질화하도록 지도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주도홍이 말했듯이 한국기독교가 신앙적 체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로 믿어야 할 것인가’(what to believe)에 대한 과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 가야 할 것인가’(how to live)라는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과업을 부지런히 추구해나가야 한다.⁸⁴⁾

83) 이한수, 『현대사회와 종교윤리』 (서울: 도서출판 바울, 1991), 서문(序文).

84)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671-672.

참고문헌

- 게르스트너, 존 H. “교회의 성경 영감 교리.” 제임스 M. 보이스 편. 황영철 옮김. 『성경의 무오성』.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3, 23-86.
- 곤잘레스, 후스토 L. 이형기, 차종순 옮김. 『기독교사상사(I)』.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0.
- 김용준. “이레니우스(Irenaeus of Lyon)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연구: ‘하나님의 두 손 교리’를 중심으로.” 『ACTS신학저널』 55 (2023), 9-44.
- 김정숙. “이레니우스의 구원론적 은총의 창조신학: 생태학적 위기 시대에 이레니우스 신학을 읽다.” 『한국조직신학논총』 61 (2020), 7-46
- 김태길. 『윤리학』. 서울: 박영사, 1994.
- 김희수. “기독교윤리와 성경.” 『기독교사회윤리』 4 (2002), 131-167.
- 나이브, 위르겐 L. 서남동 옮김. 『기독교교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 머레이, 존. 김남식 옮김. 『기독교윤리』. 부산: 성암사, 1984.
- 명신흥. 『개혁과 윤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모이어, 엘진 S. 궤안전, 심재원 옮김. 『인물중심의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 문시영. 『교회의 윤리 개혁을 향하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 박용규. 『초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 박찬호. “이레니우스의 창조론.” 『창조론오픈포럼』 5/1 (2011), 1-7.
- 보른캄, J. “복음주의 신앙의 근본원리.” 지원용 편. 『루터 사상의 진수』. 서울: 컨콜디아사, 1989, 43-68.
- 브로밀리, 제프리 W. 김해연 옮김. 『역사신학개론』. 서울: 은성, 1987.
- 석원태. 『기독교윤리』. 서울: 경향문화사, 1987.
- 성신형. “공리주의 행복론에 대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접근-행복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5 (2013), 67-90.
- 스미스, C. 크리스토퍼, 페티슨, 존. 김윤희 옮김. 『슬로터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원중홍. 『서양철학과 기독교철학』. 서울: 수덕문화사, 1990.

- 바클레이, 윌리엄. 강형길 옮김. 『바클레이의 기독교윤리』. 서울: 보이스사, 1988.
- 유경동. “주기도문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T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ὸς ἡμῖν σήμερο)’와 기독교 공동체 윤리.” 『영산신학저널』 54 (2020), 7-34.
- 이보민. 『기독교사회윤리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 이상규. “이레네우스의 신학적 인식론: ‘거짓영지’를 논박한 토대.” 『복음과 문화』 28 (2023), 179-238.
- _____. “이레네우스의 인간관.” 『복음과 문화』 26 (2021), 161-207.
- 이상근. “기독교윤리학.” 총회목회신학원 편. 『성서연구와 신학』. 서울: 유니온학술자료원, 1990, 19-91.
- 이장형. 『글로벌시대의 기독교윤리』. 성남: 북코리아, 2012.
- 이장형, 안수강. “일제강점기 기독교면려회의 노선과 기독교윤리적 함의-기관지 『眞生』 창간호(1925년 9월)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4 (2019), 367-397.
- 이종윤. 『신약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 이한수. 『현대사회와 종교윤리』. 서울: 도서출판 바울, 1991.
- 이호우. “『이단들에 대하여』 안에 나타난 이레네우스의 성경 사용에 관한 연구.” 『역사신학논총』 13 (2007), 193-223.
- 임원택. “이레네우스의 신론.” 『역사신학논총』 5 (2003), 53-74.
- 정창균. “한국교회, 절망과 소망의 이중성.” 홍동필 편. 『교회는 개혁되어야』. 수원: 영음사, 2015, 179-236.
-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 주재광. “이레네우스의 기독교론-에큐메니칼 신학형성의 근거모색을 위하여.” 『신학연구』 11 (1968), 133-164.
- 주재용. “이레네우스의 사상: 성령론, 삼위일체론, 교회론, 성례전, 부활론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8 (1991), 5-19.
- 켈리, 존 N. D. 김광식 옮김. 『고대기독교 교리사』. 서울: 맥밀란, 1988.
- 최태연. “한국 유교와 기독교의 공동체윤리.” 『기독교사회윤리』 6 (2003), 177-204.
- 편집부 편.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1987.
- 플레처, 조셉. 김동수 옮김. 『상황윤리』. 서울: 규문각, 1968.
- 한철하. 『고대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허찬욱. “이레네우스 신정론의 인간학적 함의.” 『가톨릭사상』 60 (2020), 45-73.
- 힌슨, 레온 O. 이희숙 옮김. 『웨슬리의 윤리사상』. 서울: 전망사, 1987.
- Augustinus. *Confessions and Enchiridion*. trans. Albert C. Outler. London: SCM Press Ltd, 1955.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Chadwick, Henry. *The Early Church*. Baltimore: Penguin Books, 1993.
- Clement. “The Letter of the Church of Rome to the Church of Corinth.” *Early Christian Fathers*, trans. and ed. Cyril C. Richards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n.d.), 43-73.
- Cyprianus, Caecilius. “The Unity of the Catholicism.” *Early Latin Theology*. trans. and ed. S. L. Greenslad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 Hugo H. Hoever, ed. *St. Joseph Daily Missal*. New York: Catholic Book Publishing Co., 1959.
- Irenaeus. “Against Heresies.” *Early Christian Fathers*. trans. and ed. by Cyril C. Richards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n.d., 343-397.
- Kittel, Gerhard, ed. *T. D. N. T. (I)* trans. Geoffrey W. Bromil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74.
- Leith, John 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 McGrath, Alister E. *Reformation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4.
- Ogburn, William F. *Social change: with respect to culture and original nature*. New York: Viking Press, 1950.
- Quito, Emerita S. *Fundamentals of Ethics*. Manila: De La Salle University Press, 1989.
- Renwick, Alexander M., Harman, Alexander M. *The Story of the Church*. London: Inter-Varsity Press, 1989.
- Van Til, Cornelius. *The Defence of the Faith*.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326 『기독교사회윤리』 제60집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논문투고일: 2024년 10월 08일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18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이레니우스의 “이단논박”(“Against Heresies”)에 진술된 기독교 윤리관을 윤리철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기독교윤리는 다방면의 윤리체계를 형성하며 도덕성, 성화, 경건,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등에 초점을 맞춘 영적 윤리이다. 본 연구자는 “이단논박”에 나타난 기독교윤리에 관한 핵심적인 담론을 다음과 같이 숙고했다. 첫째, 상치관계(相馳關係)로서의 규범과 상황, 진리의 잣대로서의 성경의 유일성, 성경의 권위, 총괄갱신교리(總括更新敎理)에 나타난 규범의식에 대하여 다루었다. 둘째, 사도들이 후대에 전수한 신앙, 복음, 전통을 중심으로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의 관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폈다. 셋째, 복음과 진리의 일체성을 중심으로 공동체 윤리에 주안점을 두어 고찰했다. 넷째, 본 논문에서 천착한 핵심적인 논점들을 바탕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체계적인 윤리교육 강화와 아울러 규범적 윤리, 의무론적 윤리, 그리고 공동체윤리를 활성화할 것을 제언했다.

주제어: 이레니우스, “이단논박”, 기독교윤리, 윤리철학, 교회 공동체
